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은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가 매우 높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각 경제(Gig Economy)의 확산으로 인해 시간제 배달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음.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적 방안, P2P 보험 및 '시간제 이륜차보험' 운영 등 인슈어테크 측면의 노력은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운전자 및 탑승자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매우 낮으며, 종합보험보다는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보장이 취약한 상태임

- 2018년 기준 이륜차 등록 대수는 220만 대 수준으로 승용차(1,870만 대), 승합차(84만 대), 화물차(360만 대) 총계의 십분의 일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¹⁾ 이륜차 탑승 중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20%에 이룸
 - 2018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3,781명) 중에서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739명)가 19.5%를 차지하고 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1,341명)의 55%를 넘고 있어, 이륜차의 가해·피해 여부를 떠나 이륜차 운전자는 운전 중 많은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됨(〈표 1〉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6만 대에 그치고 있어,²⁾ 전체 등록 이륜차의 50% 이상이 무보험 상태이며 보험가입자도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임
 - 대표적으로 자기신체손해 가입비율이 개인용 97.1%, 업무용 92.1%, 영업용 84.4%인 반면, 이륜차는 9.98%에 그치고 있음
 - 이륜차의 대인I 가입자 대비 담보별 가입률은 대인II 18.5%, 자기신체손해 9.98%, 자기차량손해 0.6%, 무보험차량손해 4.4%로 운전자의 직접적인 손해 보장은 취약한 상태임

1)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2) 자동차보험, 「월말보고서」

〈표 1〉 사고 시 상태별 사망사고

(단위: 명)

구분	계	자동차 승차 중	이륜차 승차 중	자전거 승차 중	보행 중	기타
2018년	3,781	1,341	739	207	1,487	7
2017년	4,185	1,417	819	260	1,675	14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2. 28),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 대”

■ 특히, 최근에는 유상운송 배달업의 성장으로 유상운송업 종사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및 보험가입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보험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유상운송 배달원들의 보험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높은 보험료와 높은 사고율 및 손해율, 그리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직 경제(Gig Economy)를 꼽을 수 있음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료는 다른 용도의 이륜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높음

-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연 평균 보험료는 19만 4천 원 수준이지만,³⁾ 용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정용 및 기타용도는 연 평균 13만 4천 원,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39만 5천 원인데 반해,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은 118만 3천 원으로 집계됨⁴⁾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대인배상¹⁾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 원) 보험료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비해 배기량에 따라 최소 1.3배에서 최고 9.7배 수준임⁵⁾⁶⁾
 - 개인용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중형 기준)의 의무보험 보험료는 개인용 승용차(국산 2000cc급)의 종합보험(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보험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⁷⁾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 및 사고율은 다른 용도에 비해 높으며, 이것은 높은 보험료의 직접적인 원인임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은 가정용이나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에 비해 손해율 관리가 적절히

3)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이륜차가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4) 이륜차보험은 이륜차의 사용 용도에 따라 ①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② 비유상운송 배달용, ③ 가정용 및 기타용도로 구분됨.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음식점 등의 사업주가 직접 이륜차를 구입하여 배달에 사용하는 경우이며, 유상운송 배달용은 퀵서비스나 배달서비스 업체의 배달 대행 기사들이 사용하는 경우임

5) 대인배상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 원)은 의무보험임. 보험료 비교는 참조순보험료율(26세 연령한정특약)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개별 운전자의 할인등급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이륜차는 배기량에 따라 소형A(50cc 미만), 소형B(50cc 이상 100cc 이하),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 대형(260cc 초과)으로 구분됨

7) 2017년 발표된 참조순보험료율(26세 연령한정특약)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차량의 보험가액, 가입자의 할인할증 등급, 운전한정특약 가입여부, 기타 특약요율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차이가 있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표 2〉 참조)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잦은 교통법규 위반이 높은 사고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임

- 또한, 위험도별 보험료 차등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표 2〉 이륜차보험 손해율 및 사고율(2018년)

(단위: %)

구분		계	가정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유상운송 배달용
손해율	2018	91.5	82.6	84.9	150.2
	2017	86.9	79.2	81.7	151.8
	2016	88.4	81.0	85.8	144.5
사고율	2018	8.6	5.2	18.3	81.9
	2017	8.4	5.1	19.1	71.8
	2016	8.4	4.9	20.0	64.9

자료: 보험개발원

- **긱 경제(Gig Economy) 활성화로 시간제 유상운송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할 보험상품이 마땅하지 않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긱 경제란 특정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프리랜서처럼 시간이 날 때에 임시로 계약을 맺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 임시직 형태의 경제 행위를 말함
-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임시직 형태의 경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상운송 배달업에서는 ‘쿠팡 플렉스’와 ‘배민 커넥트’가 대표적인 긱 경제로 꼽히고 있음
 - 배달원들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과 정식 고용관계나 전일제 계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여유가 있을 때에 본인의 자동차나 이륜차를 이용하여 하루에 몇 시간씩 배달을 하는 형태임
- 이처럼 전일제로 유상운송업을 하지 않는 경우,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고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채로 유상운송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장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에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손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과 운행 중 카메라 작동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의 앱과 연동된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앱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

보 분석을 통해 안전운전 여부를 분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분석 및 손해사정이 가능함⁸⁾

- 앱과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 시에는 이륜차에 장착된 별도의 GPS 장치나 운전자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운전 중 카메라 미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상운송업체는 배달주문이 접수되었을 때에 배달원들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달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배달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달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배달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대형 유상운송업체는 배달원의 위치 확인,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분석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배달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상운송업체는 배달원들이 짧은 시간에 배달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에 안전하게 배달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사고가 줄어들 것임

■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을 P2P 보험으로 운영할 경우 사고율이 낮은 단체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전 운전 및 사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P2P 보험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계약자들이 리스크 풀(Risk Pool)을 구성하고, 동일한 풀에 가입된 계약자들의 전체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 유형임⁹⁾
 - 보험회사가 산출한 이륜차보험료가 동일한 단체나 배달원이라 하더라도, 유상운송업체가 배달원을 대상으로 P2P 보험에 가입하고 이륜차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면, 유상운송업체나 배달원들은 다른 유상운송업체나 배달원들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¹⁰⁾
- P2P 보험은 안전운전에 따른 혜택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므로 사고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고,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가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현행 이륜차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인되는 반면, P2P 보험에서는 보험기간 말에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음
 - 동일한 업체에 소속된 운전자들이 리스크 풀을 형성할 경우, 회사나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전통적인 보험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함
- P2P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체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배달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야 함

8) 글로벌 보험회사인 Aviva는 영국에서 스마트폰 앱과 카메라를 이용한 블랙박스 카메라(Dash Cam)서비스를 제공함;
<https://www.aviva.com/newsroom/news-releases/2018/07/free-smartphone-dashcam-for-uk-drivers>

9) P2P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규동(2018. 4. 9),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KIRI 리포트』를 참고하기 바람

10) 유상운송업체 배달원이 대상인 경우, 계약자는 유상운송업체가 될 수도 있고 배달원이 될 수도 있음

■ 시간제 유상운송업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각 경제로 인한 임시직 유상운송 배달원의 보장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최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유상운송업체 및 손해보험회사와 협업하여 시간제 배달원을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을 출시하였음¹¹⁾
 -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임시직 유상운송 배달원이 배달 시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륜차 보험으로, 위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배달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이 될 것임
 - 배달원이 유상운송업체로부터 최초 배달 지시를 받는 순간에 보장이 개시되고, 당일 배달 업무를 마치고 배달원이 ‘OFF’하면 보장이 종료되는데, 위험보장을 받은 시간만큼 보험료를 부담함
 - 최근 판매된 ‘On-Off 여행자 보험’은 보험가입 편의성을 높인 상품인 반면,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보장공백을 없애는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음
- 보험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위해서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및 계약자 관리, 유상운송업체와 보험회사의 정확한 운전자 정보 공유가 필요함
 - 새로운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 공유는 개별 유상운송 배달원의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유상운송업자의 사고예방 목적의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 현행 이륜차보험은 1년간 발생하는 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향후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시간대별 시간 단위나 개별 배달 건의 사고통계 분석을 통한 보험료 산출과 개별 배달원의 배달 행태 및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도 가능할 것임¹²⁾

■ 이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적 방안, P2P 보험 및 ‘시간제 이륜차보험’ 운영 등 인슈어테크 측면의 노력은 이륜차 보험의 가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iri**

11) 이투데이(2019. 10. 14), “배달의 민족, KB손해보험·스몰티켓과 손잡고 ‘시간제 이륜차 보험’ 출시”, <http://www.etoday.co.kr/news/view/1808685>

12) ‘시간제 이륜차보험’ 시행 전에는 현행 사용하는 유상운송업 이륜차보험 요율을 시간 단위 요율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향후 데이터가 집적되면 시간대별 시간 단위 및 개별 배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